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10월 21일

CUOMO 주지사, START-UP NY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수석 부사장 발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혁신적 운동을 주도할Leslie Whatley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Leslie Whatley씨를 START-UP NY 프로그램의 수석 부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Whatley 부사장의 임명은 Cuomo 주지사가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민간 투자를 유도하며 일자리를 창출하여 뉴욕주 북부 지역 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 혁신적 운동으로 이룬 발전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START-UP NY는 전세계의 기업과 신흥 기업,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진행한 야심찬 경제 프로그램으로서 Leslie Whatley씨를 START-UP 팀에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Leslie의 부동산 및 사업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은 뉴욕주 전역의 새로운 면세 구역을 통해 신규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동안 획기적인 경제 개발 운동을 구현하는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s. Whatley는 수석 부사장으로서 Start-Up NY 프로그램의 모든 면을 이끌고 관리하기 위해 Empire State Development(ESD) 및 기타 기업 및 조직과 협력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SUNY, CUNY, 커뮤니티 칼리지 및 사립 대학 캠퍼스와 제휴한 최고 1억 2000만 평방 피트의 면세 구역 개발 및 구현이 포함됩니다. Ms. Whatley는 SUNY 연구 재단에서 일하게 되지만 ESD가 연봉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초 Cuomo 주지사는 START-UP NY 운동을 발표하여 면세로 운영할 기회를 제공하고 뉴욕의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기관과 제휴함으로써 뉴욕주 전역의 캠퍼스에 대한 민간 사업체 및 기업 투자를 유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맡고 ESD 및 뉴욕의 자랑스러운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뉴욕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전환하게 된 것에 가슴이 벅찹니다"라고 Ms. Whatley는 말하면서, "Cuomo 주지사의 비전과 일차리 창출에 대한 노력 덕택에 뉴욕주의 대학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특히 뉴욕주 북부 지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운동에 참여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체 국가의 모범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Korean

Ms. Whatley는 뉴욕주에 Start-Up NY 프로그램의 부사장으로 합류하기 전에 부동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최근에는 Morgan Stanley에서 전세계 기업 부동산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그 전에는 JPMorgan Chase에서 전세계 기업 부동산 책임자로 일했으며 초반기에도 GM의 부동산 담당자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기업인 Board of CoreNet Global의 회장으로도 일했으며 현재는 NYU Schack Institute of Real Estate의 이사회 구성원입니다. Ms. Whatley는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CoreNet Global에서 기업 부동산 마스터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